

「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

# 모두 발언

2026.5.15.(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또 하나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며  
세부제도를 탄탄하게 설계해 나갈 시점입니다.

## [주요 논의내용]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각투자 기초자산의  
적격성 판단과 혁신 지원입니다.

조각투자는 현재의 전자증권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큰증권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혁신적인 토큰화라 하더라도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자본시장의 기본 전제입니다.

예를들어,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면  
증권 가격의 안정성·신뢰도가 떨어져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고,

변동성 등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핀테크, 금융투자업권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은  
금일 협의체 논의와 추가적인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큰화 대상의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자와 같은 신종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녹색국채, 미국의 MMF 등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되었고,

NYSE와 나스닥은  
상장주식 토큰화 거래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중입니다.

우리도 임박한 미래를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전자증권을 일시에  
토큰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의 충돌로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의 권리 - 거래 - 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큰증권 유통시장 구조의 설계입니다.

다자간 거래가 가능한 장외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하여  
인가정책 등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자증권을 전제로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았다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장외거래소 인가의 겸업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등이 대표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시행령에 위임된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의 경우,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 [참고] 크라우드펀딩 : 연간 투자금액 종목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샌드박스 : 연간 투자금액 1~2천만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3억원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4천만원

## [맺음말]

토큰증권은  
명확히 정립된 글로벌 기준이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진행형 시장”이기에  
제도 설계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시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환경·제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토큰증권 협의체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